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

2024. 9.

관계부처합동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현황 및 문제점	4
III. 추진 전략	10
1. 해외인재의 유입경로 획기적 개선	11
2.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행정 지원체계 마련	14
3. 해외 인재를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	17

I. 추진 배경

◇ 경쟁국들은 S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

- 핵심인재·기술을 확보하고 신속 사업화하는 기업이 시장·공급망을 장악
 - * ASML 60나노 공정이 주류이던 '06년부터 5나노 이하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EUV장비를 연구하며, 적극적인 M&A를 통한 혁신으로 세계 유일 기업으로 성장
- 경쟁국들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인재확보에 사활
 - * (일본) 해외 인재·자금 유치전략 발표('23.4월), 최고급 인재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 * (싱가포르) 우수인재 이직·구직자유 부여, 동반가족 취업을 허용(ONE Pass) ('23.1월)

◇ 우리의 인재 정책은 국내 양성 위주, 해외인재 유치 노력은 부족

- 인재양성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증가하는 인재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이며 고급인재는 오히려 유출
 - * 인구대비 이공계 박사비중은 0.43%(19위/36개국)로 OECD 평균 이하(INSEAD, '23)
 - * 한국의 인재유치 매력도 64개국 중 43위('23, IMD)
- 기업들은 해외인재 유치·활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지원 요청
 - * (A社, AI) 국내 S급 인재는 미국·캐나다, A급은 네이버·카카오로 가고, 제조업은 대기업조차도 AI 인재 구경을 못하는 실정. 해외인재들은 다른 나라를 선호

◇ 개방 혁신 생태계로 전환해 해외 인재와 기술을 유치·활용

- 우수인재의 국내유치부터 기술이전·공동연구·기업인수를 통한 해외 인재 두뇌활용까지 포괄하는 해외 우수인재 확보 종합전략 마련
- 자유무역을 통해 유례없는 성장을 일궈냈듯이 국경을 초월해 전세계 인재·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 혁신 모델로 전면 개편

“많은 기술은 이미 세계 어딘가에 존재. 5년, 10년동안 기술 개발만 하다 보면 남들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고 있음. 세계에 널려있는 **기술과 인재**를 누가 먼저 찾아 연결해서 비싸게 잘 팔릴 제품을 만들어 내느냐, 여기서 승부가 나는 것, 기업들이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

(제51회 상공의날 대통령 말씀, '24.3.21)

참 고



글로벌 개방 혁신 개념 및 유형

□ 글로벌 개방 혁신 개념

- 전세계의 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아이디어·기술을 공유하고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혁신의 방식

□ 개방 혁신 유형

유형	내용	장단점
① 인재 확보		
① 석박사 연구인력·연구소 유치	▶ 글로벌 인재 유치를 통해 국내 혁신 활동 활성화	√(장) 최신 기술·지식 확보, 글로벌 네트워크 √(단) 고비용, 문화·언어장벽, 정착 유인 요
② 혁신 전문인력	▶ 엑셀러레이터, VC 등 글로벌 혁신전문가 유입	√(장) 혁신 네트워크 확보, 산업·지역과 시너지 √(단) 높은 초기투자 비용 및 인센티브 요
② 기술 소싱		
① 기술인수	▶ 외부 기업·기관·개인이 보유한 기술을 구매하여 소유권 획득	√(장) 빠른 혁신, 독점적 기술 확보 √(단) 고비용, 기존 기술과 통합 애로 가능성
② 라이선싱(실시료)	▶ 금전적 계약(고정 또는 매출의 일정비율)을 통해 기술 사용권(독점·비독점) 구매	√(장) 비용절감, 검증된 기술로 빠른 시장진입 √(단) 사용 제한, 경쟁사 차별성 低, 장기 비용
③ 공동기술개발	▶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장) 지재권 공유 수반, 자원 공유 √(단) 의사결정 지연, 기술 소유권 문제
④ 위탁연구개발	▶ 특정 요소기술 확보 또는 시험평가를 위해 연구개발 용역 의뢰	√(장) 외부 전문성 활용, 내부 자원 절약 √(단) 지재권 공유 無, 품질 통제 애로
③ 전략적 투자		
① 인수합병(M&A)	▶ 기술을 보유한 기업 인수	√(장) 신속한 성장, 기술·인재 즉시 활용 √(단) 고비용, 기업 통합 문제
② 합작투자(JV)	▶ 공동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해 기술사업화 추진	√(장) 규모의 경제, 협력 시너지, 위험 분산 √(단) 의사결정 대립, 결과물 배분 분쟁
③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 자체 자본을 활용해 기술을 보유한 기업(주로 벤처)에 지분투자	√(장) 비용 효율, 전략적 시너지 √(단) 높은 실패율, 정보 비대칭

구분	내용
① 인재유치	
강대원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 1년만에 세계최초 MOSFET 기술 발명으로 반도체산업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 ('59) 美 오하이오 주립대 석·박사 및 美 벨 연구소 입사 ▶ ('60) 입사 1년만에 반도체 산업의 성장 발판인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MOSFET) 제조 → 美 IT·전자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강대원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에디슨, 라이트 형제 등 300명만이 이름을 올린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09)
모리스 창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의 파운드리 1위, 대만의 국민기업 TSMC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T 졸업,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에서 경력을 쌓은후, 대만 정부의 요청으로 TSMC 설립('87) ▶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 ▶ 대만경제 부흥(국내 총생산의 15%), 반도체 산업에 지대한 영향
② 인재활용	
기술소싱 AS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빠르게 연결해 세계 유일 기업으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 70년대 구소련 과학자들이 개발한 거울 반사 기술을 응용해 차세대 EUV 노광장비 프로토타입 개발('06) ▶ ('10s) 美 광원기업 사이머 인수('13), 獨 광학전문회사 칼자이스 지분(24.9%) 인수('16) 등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로 EUV 장비시장 독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ML은 니콘·캐논과 달리 핵심 부품과 기술을 외주화한 것이 성공 비결"(日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기업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M&A보다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형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및 전략적 인수를 통해 선도기업 입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이스라엘 AI 가속기 스타트업 '멜라녹스'와 다년간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계 최고수준의 고성능 네트워킹 및 AI 가속기 기술 확보 ▶ ('24) 자사 GPU를 기반으로 다수 개발업체들과 협력하고, SW 및 딥러닝 분야의 이스라엘 스타트업을 공격적으로 인수(RunAI, Deci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챗GPT 발표 이후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지속 상승해 MS와 애플에 이어 세계 3위 기록('24.5) * 오픈AI社의 GPT-4는 엔비디아의 GPU 2만 5천개로 훈련
전략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사업 확장, 외부 기술·인력 확보 및 신시장 개척 등 혁신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년 설립이후, 전세계 57개국 1,500개사 이상 약 120억불 투자, 670개사 이상이 IPO 및 M&A를 통해 엑시트 ▶ 인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생태계 구축, 시장개발, 첨단기술 시장의 미래예측, 기술적 갭필러 등 전략적 목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 및 서비스, 반도체, 클라우드 및 데이터, AI 및 머신러닝 등

Ⅱ. 현황 및 문제점

1 해외인재 확보 현황

◇ (인재유치) 그간의 노력에도 해외인재 유치 실적 미흡

□ 국내체류 지원 등을 통해 해외고급인재 유치 노력

- 특정활동 비자(E-7)*,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 및 장기간 국내 체류 지원

* 기업과 근로계약 전제 1회 최대 3년 체류, ** 과기원·UST 석박사 인재 거주·영주 유도

- 산업계, 연구계 등 분야별로 해외인재 유치 지원사업 추진

* (산업계) Contact Korea → 인재발굴, 면접주선, 고용추천서 발급 등 지원

(연구계) Brain Pool+ → 해외과학자 초청 인건비, 연구비 등 지원

□ 그러나, 주요국가 대비 해외전문인력 비중은 전세계 최저 수준

- (유입) 해외인재 유입 매력도가 낮고, 국내 활동도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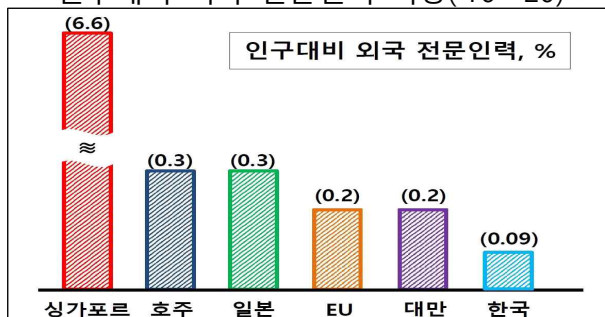
* 한국의 인재유치 매력도 순위('23, IMD) : ('20) 36위→ ('21) 41위→ ('22) 49위→ ('23) 43위

- (유출) 외국인 고급인력 양성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정착 비중이 낮고, AI 등 첨단산업 고급인재는 오히려 유출

* 외국인 국내 박사학위 취득(명) : ('17) 837→ ('18) 876→ ('19) 1,053→ ('20) 1,240→ ('21) 1,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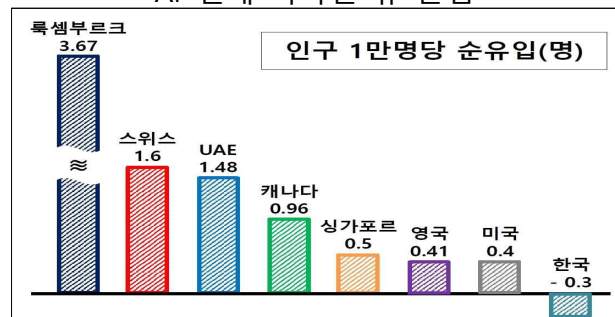
*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후 거취(% , '21) : 본국 귀국 62, 한국 거주 30, 외국이주 4 등

< 인구대비 외국 전문인력 비중('16~'20) >



* 해외전문인력 입국/체류실태 분석(서울대, '23)

< AI 인재 국가별 유·출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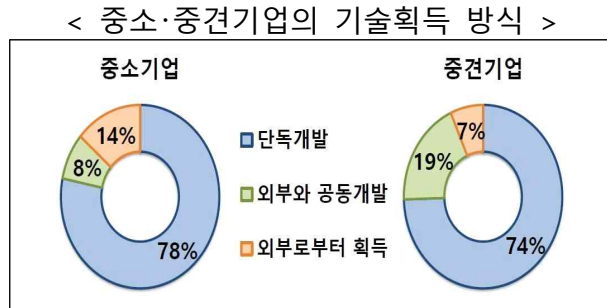
* AI Index Report(Stanford Univ., '24)

◇ (인재활용) 해외인재 활용을 위한 기술·기업 소싱도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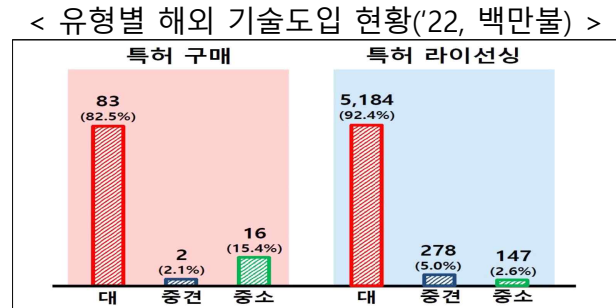
□ (기술이전) 해외기술의 도입(특허·매입·라이선싱 등) 미미

- * 지식재산 도입 경험('23 지식재산활동조사) : 국내로부터 ('20) 8.6% → ('23) 11.6%
해외로부터 ('20) 0.3% → ('23) 1.3%

○ 중소·중견기업은 외부로부터의 기술소싱보다는 자체 개발에 치중



- *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실태와 정책제언(KISTEP, '20)
- * 중견기업 실태조사 제2업편(중견연, '22)



- * 기술무역통계보고서(KOITA, '22)

□ (공동연구) 국내 연구에 의존하는 연구문화로 혁신성과 창출 저조

○ 국제 공동연구 비중은 지속 증가중이나, 아직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 * 국제공동연구(건수) 비중(%, '23, KISTI) : ('19) 31.8 → ('20) 32.6 → ('21) 33.4 → ('22) 35.9
- * 국외협력논문 비중(%, '20, NCSES) : 상 71, 영 65, 독 56, 이스 53, 미 40, 한 31(4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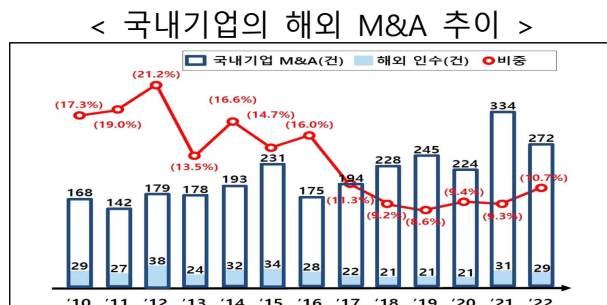
□ (전략투자) 해외 M&A·CVC 투자는 글로벌 기업 대비 부진

○ (M&A) 우리 기업의 해외 인수 건수는 정체중(연간 20~30건)이며, 전체 M&A 대비 해외 인수 비중도 지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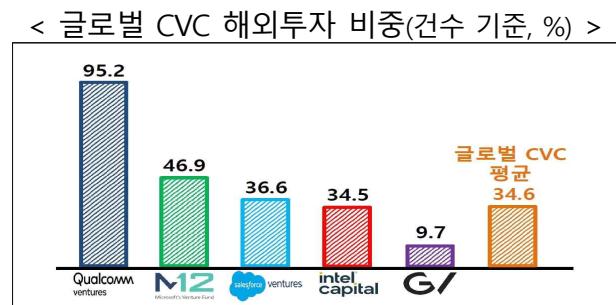
- * 금액기준 M&A 거래규모는 12위, GDP대비 비중은 세계 10위('22)

○ (CVC) 해외투자의 족쇄는 풀렸지만 핵심규제는 유지

- *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르게 지주회사 체제 내 CVC는 해외투자 비중 20% 한도



- * 국내 M&A 특징 분석과 시사점(자본시장研, '23)



- * 해외CVC 현황과 일반지주회사CVC 시사점(자본시장研, '23)

2 해외인재 확보 부진요인

◇ (인재탐색) 해외 인재·기술 탐색·식별 비용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

- 해외 우수 인재 정보탐색에 많은 시간·비용 필요
 - * 삼성·현대차 등은 현지 글로벌 연구센터를 통해 탐색하지만 여타 기업들은 한계
- 글로벌 인재를 발굴·유치하고 해외기관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기업·인재 네트워킹 기회 부족

“해외인재 발굴을 위한 **컨택 포인트가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서칭이 어렵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는 기관 필요” - 디스플레이 분야 담당

“중소기업의 구인경로는 코트라와 현지 헤드헌팅(교민 활용) **뿐으로 해외 인재 탐색이 제한적 상황**” - 미래차 분야 담당

◇ (인재유치) 기업은 인재 발굴-유치-정착 쉼단계에서 애로 호소

- (수요기업) ▲연봉·복지 등 처우 협의의 어려움, ▲주거 등 정착 전반 관리 문제, ▲까다로운 비자발급 등에 대한 애로 제기
- (유치단계) 해외인재 글로벌 기업의 높은 연봉 수준, 자녀 교육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한국으로 이직할 유인이 적은 상황
 - * 美반도체기업 연봉 : 임원급 8억원 이상, 수석엔지니어 5억원 이상 (퀄컴, 인텔 등)
- (정착단계) ▲주거여건(주거비·주거정보), ▲국제학교 입학 및 교육비 등 자녀교육, ▲비자 갱신 등 각종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호소

“서울의 **초기정착비용(주거·교육 등)이 매우 높다**고 들어서,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수준으로는 한국 생활을 선뜻 결정하기 어려움”
- 美IT社 재직 미국인 엔지니어

“자녀들의 귀국시 **한국어 교육과 경쟁이 심한 국내 교육환경 등이 우려**되므로 국제학교 입학 특례 정도의 강한 Benefit이 필요”
- 美반도체社 재직 한국인 엔지니어

“**E-7 비자는 매년 갱신**해야 하고, 3명 가족 중 1명이라도 이슈가 있으면 연장이 안됨, 기업도 매년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해서 부담”
- 韓 IT社 재직 해외인재

◇ (인재활용) 글로벌 개방 혁신에 대한 체계적 준비미흡

- 기업들의 폐쇄적 혁신 방식 고착화
 - 과거 성공경험으로 인해 기존 폐쇄적 혁신방식에 대한 의존 지속
 - 기업은 외부협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기술·아이디어 유출을 우려
- 개방 혁신 추진을 위한 기업역량(인재·네트워크·자본) 부족
 - 해외기업·기관과 혁신을 추진할 고급인력(연구인력, 엔지니어 등) 부재
 - 외부자원 접근에 필요한 상당한 초기투자와 지속적 자금투입에 한계
 - 해외 기술을 도입하려해도 PoC 과정에 많은 비용이 들고 테스트 필요
-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시장과 생태계 미비
 - 우리기업과 해외인재·기술·자본을 연계할 전문 서비스는 초기 단계
 - * 대부분 국내 대상 영세기업 위주이고, 일부 글로벌 기업(클래리베이트 등)이 활동
 - 서비스 기업은 기술 해외이전, 해외 대기업-국내 스타트업 연계 치중
- 국내 R&D 지원과 해외 진출向 위주로 지원 정책 편중
 - 기술혁신 지원수단은 국내 위주의 R&D 정책이 대부분이고, 글로벌 개방 혁신을 표방하는 사업들은 대중소 상생, 해외진출에 초점
 - * (KOTRA)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진입지원, (무협) 글로벌 대중견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등
 - 해외의 인재·기술·기업 등 기술혁신자원을 효과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한 전략 및 사업도 부족

“PoC 및 기술검증 과정의 테스트베드나 마중물 자금 지원이 필요”

- 韓 A社 대표

“글로벌 개방 혁신이 필요하나 내부인력의 전문성과 이해도가 부족하고, 국내 연구기관이나 기술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원이 부족해 추진애로”

- 韓 B社 대표

“글로벌 개방 혁신은 국내 기술·인재 도입보다 어려운 과정으로, 관련 인센티브나 국내 기술개발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 필요”

- 韓 C社 대표

3 국내외 해외인재 수요 분석 및 시사점

① 기업은 첨단산업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고급인재 유치 희망

- **반도체** 첨단 패키징 및 EUV 기술(파운드리 미세공정), 시스템반도체 칩설계(AP) 관련 글로벌 기업에서의 경험이 있는 기술전문가 영입 노력
 - * 메모리 분야의 경우, 국내 수준이 월등하여 국내 및 내부인사 적극 활용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디스플레이 Tech Base가 중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에 대한 전문가 수요
- **배터리** 인재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지개발(EV, ESS 전지), 소재 배합 개발, 스마트팩토리 구축 인재를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영입
 - *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아마존, 엔디비아 등의 AI/Data 전문가
 - 소재개발: 출신기업보다 글로벌 Top대학 재료공학 및 화학 박사 출신 선호
- **모빌리티** 사업확장 영역(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등)이 넓어 유관 산업내 연구개발 이력이 있고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해외인재 수요多
 - * 현재 해외인력 영입영역: 디자인, 친환경(전기차, 수소차 등) R&D
 - 해외인력 영입 확대영역: 스마트 모빌리티(AI, SW, IT), 친환경 차량 고도화(안전성 강화)

② 해외인재를 유치·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체계 구축이 시급

- 기술혁신은 핵심인재로부터 시작, 쏠세계는 인재확보 총력전에 돌입
 - 지금까지 우리의 인재 확보 전략은 ‘국내 인재 양성’ 중심, 글로벌 인재확보 속도전 대응을 위해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도 중요
- 개방형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이 원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
 - ①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단계별 지원 강화
 - ② 기업의 글로벌 기술·인재 흡수역량 제고 지원
 - ③ 글로벌 개방형 생태계 조성으로 혁신 선순환체계 구축

국가	주요정책												
<div>① 미국</div> <div></div>	<div>■ 우수인재의 정착 유도, 美첨단산업에 기여하도록 지원</div> <div><div>▶ 다수의 Big-Tech기업 및 우수대학 보유, 영어사용 등으로 높은 체류수요 → 既유입된 우수 이공계 인재의 취업 및 정착을 유도</div><div>▶ 이공계 인재의 수학·근로·이민기회 확대방안 수립('22.1) → STEM 분야 학부·대학원생 대상 졸업후 취업프로그램(OPT) 최대 36개월로 연장</div><div>▶ 기업은 핵심인재에게 최고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영입</div></div>												
<div>② 영국</div> <div></div>	<div>■ 과학·기술 유망인재 유입 촉진을 위한 문호 확대</div> <div><div>▶ 세계 Top50 대학 출신 인재에게 고용 등의 증명이 없어도 거주하며 첨단산업 구직활동이 가능한 '고도인재비자(HPI)' 발급 ('22.5)</div></div>												
<div>③ 일본</div> <div></div>	<div>■ 최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제도 도입</div> <div><div>▶ 우수인재 비자 도입('12) 후 해외전문인력 증가(['13] 13만명 → ['23] 60만명)</div><div>▶ '23.4월,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를 신설하여 유망인재, 고급인재의 유입 촉진을 위한 특별비자제도 운영</div></div> <div><日 특별고도인력제도('23.4)></div> <table><tr><th></th><th>J-Find (잠재력이 높은 젊은 인재)</th><th>J-Skip (최고 수준의 고급인재)</th></tr><tr><td>자격요건</td><td>· 세계대학랭킹 100위권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졸업 후 5년이내)</td><td>· 학술연구/전문·기술 분야 : ▲ 석사 이상, ▲ 실무 10년 이상 중 하나 만족, 연봉 2,000만엔 이상 · 경영·관리분야 : 실무 경험 5년이상</td></tr><tr><td>체류</td><td>· 최장 2년</td><td>· 1호 : 5년 → (1년後) 2호 : 무기한</td></tr><tr><td>지원내용</td><td>· 취업, 창업 준비 등 다양한 활동 허용 · 배우자 및 자녀 거주 허용</td><td>· 영주허가요건 완화(일반 10년 → 1년) · 배우자 취업, 부모 체류, 가사도우미 2명까지 체류 비자</td></tr></table>		J-Find (잠재력이 높은 젊은 인재)	J-Skip (최고 수준의 고급인재)	자격요건	· 세계대학랭킹 100위권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졸업 후 5년이내)	· 학술연구/전문·기술 분야 : ▲ 석사 이상, ▲ 실무 10년 이상 중 하나 만족, 연봉 2,000만엔 이상 · 경영·관리분야 : 실무 경험 5년이상	체류	· 최장 2년	· 1호 : 5년 → (1년後) 2호 : 무기한	지원내용	· 취업, 창업 준비 등 다양한 활동 허용 · 배우자 및 자녀 거주 허용	· 영주허가요건 완화(일반 10년 → 1년) · 배우자 취업, 부모 체류, 가사도우미 2명까지 체류 비자
	J-Find (잠재력이 높은 젊은 인재)	J-Skip (최고 수준의 고급인재)											
자격요건	· 세계대학랭킹 100위권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졸업 후 5년이내)	· 학술연구/전문·기술 분야 : ▲ 석사 이상, ▲ 실무 10년 이상 중 하나 만족, 연봉 2,000만엔 이상 · 경영·관리분야 : 실무 경험 5년이상											
체류	· 최장 2년	· 1호 : 5년 → (1년後) 2호 : 무기한											
지원내용	· 취업, 창업 준비 등 다양한 활동 허용 · 배우자 및 자녀 거주 허용	· 영주허가요건 완화(일반 10년 → 1년) · 배우자 취업, 부모 체류, 가사도우미 2명까지 체류 비자											
<div>④ 대만</div> <div></div>	<div>■ 해외인재유치 전담조직 설치 등 체계적인 유치시스템 구축</div> <div><div>▶ 민관합동 사절단을 주요국에 파견하여 인재유치 프로모션 진행 ↳ Talent Trip: 캠퍼스 설명회, 간담회, 인재교류 MOU, 유치제도 홍보 등('22.9~)</div><div>▶ Gold Card(특별비자) 발급 : 제한 없는 취·창업, 거주비자 및 거주증, 무제한 출입국 등 4in1 패키지 지원</div><div>▶ 소득세 및 고용주 지원비용 비과세 특례 제공 ↳ △소득세: 입국 후 5년간 연소득 300만 대만달러(약 1.3억원) 초과분의 50% 비과세, △고용주 지원비용: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통해 지원하는 월세비, 이사비, 교통비, 통신비 등 비과세</div></div>												

Ⅲ. 추진 전략

비전

해외인재 유치·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국가**」로 전환

정책 목표

첨단산업 해외고급인재 1천명 유치('~30)
해외인재 유치 매력도 Top 20이내('~34)

전략 및 세부 과제

I. 해외인재의 유입경로 획기적 개선

- ① 특별비자+정주지원 프로그램(K-Tech Pass) 신설
- ②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저변 확대

Ⅱ.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행정 지원체계 마련

- ① 첨단기술 보유 해외인재 탐색기반 확충
- ② 공공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과 핵심인재 연결 지원

Ⅲ. 해외인재를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

- ① 해외 두뇌 활용을 위한 기술도입 및 전략투자 지원
- ② 개방 혁신 3대 분야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③ 글로벌 개방 생태계 조성

1 특별비자+정주지원 프로그램(K-Tech Pass) 신설

① Top-Tier 첨단산업 인재 대상 특별대우 비자 발급(비자코드 신설)

- (대상) 첨단산업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 (예시) '첨단산업계 해외고급인재' 기준

[학력] 공대 세계 Top 100 석·박사 졸업, [연차] 8년 이상, [출신회사] 해당 산업계 Value chain 전반의 세계 Top 30 기업, [경력] 프로젝트 리더 경험 등 고액 연봉자

※ 해외고급인재 기준은 세부 시행계획 준비 과정에서 별도 마련 예정

- 창업·벤처·연구계(대학, 연구소)도 특별비자 대상으로 확대 추진

- (주요내용) 입국·체류·취업 제한이 대폭 완화된 특별비자 프로그램 신설

< 주요 혜택 >

- ▶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F-2비자(장기체류, 이직자유)로의 전환 허용
 - ※ 거주(F-2) 자격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 시 영주권 신청 가능
- ▶ 비자 심사기간 대폭 단축(2개월 이상→2주)
- ▶ 제출 서류 간소화(내국인 대체불가 소명 등 불요)
- ▶ 동반입국 허용범위 확대(배우자·자녀 → 부모, 가사도우미 추가)
 - ※ 우수인재 F-2 자격 전환시 배우자·자녀도 F-2 자격전환 및 자유로운 취업 가능, 미성년 입국으로 성년이 되어도 가족과 동반 체류 가능
- ▶ 전국 공항만 출입국 시 우대
- ▶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 추진

※ 기존 E-7 비자로 체류 중인 해외우수인재도 K-Tech Pass 전환 가능

- (발급규모) '30년까지 총 1,000명 목표

② 「K-Tech Pass」 발급자 대상 교육·주거·금융 등 정주 패키지 지원

- (교육) 해외 우수인재 자녀에 대해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조항 신설 추진('25.上)

- (주거) 전세 대출규모를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現 2억원→改 5억원) 및 전담 글로벌 공인중개사 매칭, 전월세 정보 영문 지원 서비스 강화

* 한도확대 요건: 정부의 우수인재 인증, 기관의 고용 사실확인서 제출, 대출 이자 자동납부 등

○ (세제)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 추진(시행령 개정)

* (현행)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23.1월 시행)

○ (정착) 한국어교육 등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추진

* 한국어 교육, 한국 정착(통역·행정처리 등), 한국문화 공연·전시 참여 지원 등

- 매년 해외우수 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비자·정주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및 추가 지원방안 강구

※ 「K-Tech Pass」 프로그램 세부 시행 계획 별도 마련('24.12월)

< 「K-Tech Pass」 프로그램 세부 지원사항 >

구분	지원사항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고급인재 조건* 만족, 첨단분야 취·창업 확정시 발급 ※ 해외고급인재 기준은 세부 시행계획 준비 과정에서 별도 마련 예정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첨단산업계 해외고급인재' 기준</p> <p>[학력] Global 공대 Top 100 석·박사 졸업, [연차] 8년 이상, [출신회사] 해당산업계 Value chain 전반의 Global Top 30 기업, [경력] 프로젝트 리더 경험 1회 이상 등 고액 연봉자</p> </div>
비자 특별 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F-2비자(장기체류, 이직자유)로의 전환 허용 ※ 거주(F-2) 자격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 시 영주권 신청 가능 · 비자 심사기간 대폭 단축(2개월 이상→2주) · 제출 서류 간소화(내국인 대체불가 소명 등 불요) · 동반입국 허용범위 확대(배우자·자녀 → 부모, 가사도우미 추가) ※ 우수인재 F-2 자격 전환시 배우자·자녀도 F-2 자격전환 및 자유로운 취업 가능, 미성년 입국으로 성년이 되어도 가족과 동반 체류 가능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전국 공항만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가능
정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인재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 전세 대출한도·보증한도를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 (現 2억원 → 改 5억원) 및 전담 글로벌 공인중개사 매칭 · 한국어교육 등 해외인재 정착 지원방안 마련 추진 * 한국어 교육, 한국 정착(통역·행정처리 등), 한국문화 공연·전시 참여 지원 등 · 전담기관 밀착지원(KOTRA) * 비자 준비부터 정주까지 밀착 지원 ·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 추진 * (현행)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23.1월 시행)
지원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초청기업·해외인재의 비자신청(K-Tech Pass 서류 일괄제출) → ② 산업부 추천 → ③ 법무부 심사 → ④ 비자 및 K-Tech Pass 발급

②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저변 확대

* 4대 첨단산업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혁신 인재

① 국내 STEM 학위 취득 유학생 대상 체류기간 연장 추진(6개월→1년)

- **현재** 최초 체류 6개월, 6개월씩 3회 연장 가능(최대 2년) →
개선 STEM 학사 이상 취득 유학생*에 **최초 체류기간 1년 허용 (D-10)**

* 예) 美 F-1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비자 : 특정 STEM 학위 취득 유학생에게 전공분야 고용을 요건으로, 최대 3년까지 체류 허용(일반 OPT는 1년까지 허용)

② 벤처·창업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 (도입방안) 학력 및 지식재산권 보유 등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스타트업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통해 창업비자 발급('24년내 도입)

기존 기술창업비자(D-8-4) 발급요건		⇒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점수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전문학사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 OASIS 프로그램 80점 이상 득점* 및 필수항목 1개 이상 충족 * 지식재산권 보유·출원, 투자유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 후 추천서 발급
점수제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참여 ■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3천만원 이상) 		

- (발급절차) 투자자·외국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 후 중기부 추천을 통해 법무부 최종발급

③ 해외 대학·기업 연구센터 및 우수인재 유치

- 해외 대학·연구기관의 국내 R&D 센터 유치시 관련 지원 확대

< 유치 검토중인 사례 >

- ▶ N 공대 : 국내 R&D 센터 설치, 양국간 첨단산업 프로젝트 추진 제안('24.4)
- ▶ J 대 : 인천(송도)내 글로벌 바이오 기술혁신센터 설립 및 연구진 교류 검토중
- ▶ G 공대 : 인천(송도)내 글로벌 AI 연구센터 설립 검토중

* 경자구역의 경우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시 보조 지원중('24년 56억원, 5개기관)

- 글로벌 기업 R&D 센터를 국내 대학에 유치시 관련 지원 확대

* 대학혁신기반센터(UIC) 사업 후속으로, 센터유치 연계지원사업 검토(UIC+, '26~)

II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행정 지원체계 마련

1 첨단기술 보유 해외인재 탐색기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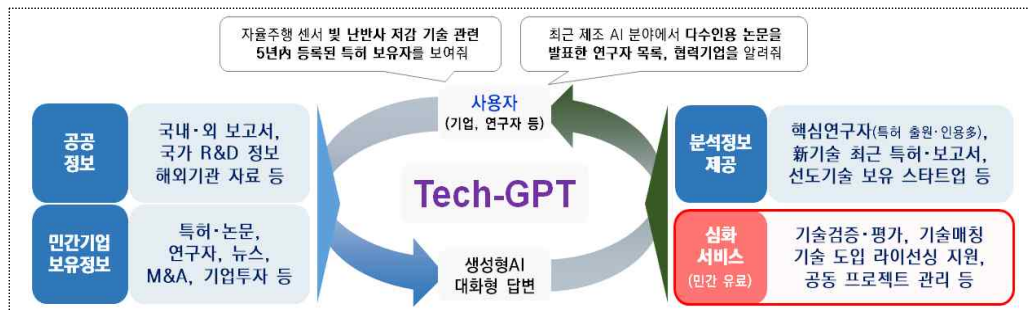
1 전세계 Top-Tier 인재·기술 탐색을 위한 Tech-GPT 플랫폼 구축

- GPT모델을 기반으로 공공정보와 민간서비스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인재·기술·기업에 대한 종합분석 정보 제공(무료)('24~)

* (민간) 특허, 논문, 기업분석 등 + (공공) R&D결과보고, 기술로드맵, 전문보고서 등

- 민간기업*과 연계해 기업 맞춤형 혁신전략 등 심화 서비스 제공(유료)

* (전략) 세부기술 검증·분석, 협상·도입 계획 등, (매칭) 해외 연구자·기업 평가, 연결지원 등



2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인재·기술 탐색 지원

-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협력기회 탐색의 가장 좋은 계기라고 평가하는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대폭 확대

* (기존) 중소·중견 4,200개社 → (확대案) 4,460개社

- 국내외 기술개발자·수요자·중개자들이 정보교류·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국내 전시회 개최 추진

* 기술사업화 대전에 글로벌 이노베이션 세션 추진('24.9월) → 국제행사로 확대

- 글로벌 다자기술협력 채널(Eureka*·EEN**) 內 국내 기업활동 촉진

* 유레카 클러스터 한국 지정 추진, 코리아 유레카데이 참여 확대(20→40개社) 등 강화

** EEN 기업간 협력 촉진을 위한 ①파트너링, ②자문·컨설팅, ③홍보 지원

- 핵심국가 거점지역 중심 고급인재 유치 TR 개최(연4회, KOTRA)

* 해당지역 핵심인재 유치 위한 협력비전·사례, 실질적 인센티브 등 집중홍보

참 고

해외인재 유치 TR 개최장소 [예시]

장소	산업	대상	연계사업/학교(QS 순위)
[미국]Las Vegas	IT·SW·AI 모빌리티	현직자 스타트업	CES 한국관
[스페인]바르셀로나	IT·SW·AI	현직자 스타트업	MWC
[미국]뉴욕·보스턴	종합	종합	MIT(1), 하버드(3), 코넬(13), 프린스턴(18), 콜럼비아(23), NYU(39), Carnegie Mellon(52), UPenn(83), 보스턴(93)
[미국]샌프란시스코	사이버보안 IT·SW·AI	현직자, 연구인력	RSA Conference , Stanford(5), UC Berkeley(10)
[독일]슈투트가르트, 뮌헨, 베를린	종합	현직자, 연구인력	The Battery show , 뮌헨공과대(37), 뮌헨대(54), 베를린자유대(98), 재독과학기술자협회
[미국]LA인근	종합	현직자, 연구인력	Bio USA , Caltech(15), UCLA(30), USC(116), UC San Diego(62)
[미국]샌프란시스코	반도체 IT·SW·AI	현직자 스타트업	Semicon WEST , Stanford(5), UC Berkeley(10)
[미국]텍사스	반도체	현직자	UT Austin(58), Texas A&M(135)
[미국]시카고 인근	바이오, 종합	연구인력	시카고(11), 미시간 앤아버(33), Northwestern(48), 어바나삼페인(64), 퍼듀(99), 미시간주립(136)
[미국]워싱턴DC 인근	방산, 바이오, IT·SW·AI	현직자, 연구인력	AUSA , 존스홉킨스(28), 재미과학기술자협회
[영국]런던	종합	종합	캠브리지대(2), 옥스퍼드(3), Imperial College London(6), UCL(9), 맨체스터대(32) 등
[프랑스]파리	종합	종합	PSL대학교(24), Institut Polytechnique de Paris(38), 소르본대(59), Paris-Saclay대(71) 등

② 공공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과 핵심 인재 연결 지원

① 해외인재가 보유한 첨단기술 식별·평가서비스 제공

- 첨단기술 중심지의 해외무역관(실리콘밸리, 텔아비브 등)을 기술협력 중심으로 개편해 인재·기술 정보 수집·평가, 투자 컨설팅* 제공

* 예) 對美 기술도입형 M&A 추진시 CFIUS(외투심사제도) 절차, 승인·거부 사례 등 자문

- 재외한인 기술전문가 그룹(K-TAG)을 확대*하고 인재·기술 발굴·평가, 협업중개 등 역할 강화('24년 4억원)

* K-TAG(Korea Technology Advisory Group) : EU·美·日 등 22개국 약 600여명
↳ (現) 재외 한인 기술자문단 + (확대) 기업인·컨설턴트, 공동 R&D 연구자

② 해외인재 유치·활용 원스탑 서비스를 위한 국내 지원체계 구축

- 해외인재 탐색과 유치를 지원하는 전담 데스크를 구축



③ 해외 전략지역에 해외인재 협력 거점 구축

- 세계 최고수준의 글로벌 연구기관에 산업기술협력센터 12개 지정(~'27)

* 국내기업-해외 연구기관간 협력수요 발굴·매칭, 코디네이터 배치 및 공동연구 지원

* '24년 MIT, 예일, 존스홉킨스, 프라운호퍼 등 6개 센터 지정 → 12개로 확대

- 국내 기업이 현지에 상주하여 협력 사업을 발굴·기획하는 글로벌 파트너링 거점 확충('26~)

* 한-독 기술협력센터('20~, 11개 중소·중견기업 입주) 모델의 확산

- ①현지화 및 기술정보 제공, ②협력 파트너 발굴·매칭, ③유망 M&A 기업 발굴 지원 등

1 해외 두뇌 활용을 위한 기술도입 및 전략투자 지원

1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국제공동연구 확대(⁽²⁴⁾1천억→^(28 목표)1.9조원(누적))

- (급소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완성품 경쟁력은 보유중이나, 밸류체인 內 취약한 핵심(급소)기술로서 시급히 확보해야 할 80개 기술*

* (예시) 리튬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소재부품, 초소형·고해상도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 초격차 프로젝트 중 국내 개발이 곤란한 요소기술 선별 → 해외 기관 탐색 → 최적 파트너 매칭 → 5년 內 개발·상용화 추진

-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국내 기업의 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글로벌 원천기술과 연계하여 개발해야 할 첨단산업 분야 100대 원천기술

-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통해 韓기업 - 세계 최고 연구기관 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 R&D, 인력교류 지원

< '24년 공동 R&D 지원 계획 >

■ 참여기관

- ▶ 해외기관 : 총 7개국 47개 기관(기업 16, 대학 22, 연구소 6)
- ▶ 국내기관 : 총 103개 기관(기업 69*, 연구소 12, 대학 18, 기타 4)
- 대기업 12, 중견 12, 중소기업 44개사 등

■ 주요과제 (44개 과제, 총 395억원)

분야	참여 기관		과제 내용
바이오	국내	한울바이오파마	(세계 최초) 참여 해외기관 원천기술(ERA)을 통해 mRNA를 사용한 인체 조직의 생체 나이 역전 기술 개발
	해외	MIT	
반도체	국내	동진세미캠	(원천 기술) 최고 선도기관이자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기관과 차세대 나노소자 제조를 위한 원자 수준의 패터닝 소재·공정 개발
	해외	스탠퍼드	
로봇	국내	엘엔로보틱스	(세계 최초) 해외기관이 중재시술로봇 구동을 위한 주요 역할 담당, 3차원 혈관구조 가시화가 가능한 다채널 심혈관 중재시술 로봇기술 개발
	해외	존스홉킨스대	
배터리	국내	나노인텍	(원천 기술) 가장 완성도 높은 기술을 보유한 프라운호퍼와 차세대 배터리 제조공정인 건식공정의 기술적 난제 해결
	해외	프라운호퍼	
미래 모빌리티	국내	HD현대중공업	(세계 최고) IAV, LEC(유럽 최대 엔진 시험설비 보유 연구기관)과 협력으로 선박/발전용 초대형 수소엔진(2~8MW급) 개발 및 상용화
	해외	AVL List	

② 해외기술 도입에 대한 검증 및 사업화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이 도입을 희망하는 해외기술의 사전검증 지원('24~)

* (기존) 국내기술 대상 해외현지인증 및 PoC 지원 중('24년 12.4억원)
(확대案) 해외기술 검증서비스(출연연·시험인증기관, 건당 3천만원) 지원

** 특허매입, M&A 등의 기술도입 후 후속 R&D를 통해 사업화 지원('24년 71억원)

- 기술사업화 R&D사업(X&D)*에 기술검증을 추가지원하고, 대상분야 (現 소부장 → 첨단산업분야) 확대 추진

* 특허매입, M&A 등의 기술도입 후 후속 R&D를 통해 사업화 지원('24년 71억원)

기술탐색	→	기술검증	→	기술이전 계약	→	추가기술개발(X&D)
해외 우수기술 탐색 및 모니터링		발굴한 해외기술이 적합한 기술인지 확인하기 위한 기술검증		가치평가, 재무법무영업 실사, 인수 구조설계자금조달 등 계약/협상 지원		해외기술 도입과 연계하여 피인수기관과의 기술 커스터마이징 지원

- 기술가치 평가기관(공공 20, 민간 14)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기술 평가교육 신설('25) 및 해외기술 평가교본 발간('25.下)

- 성능평가·분석, 제품시험·실증 시설·장비를 지속 확충*하고, 해외 기술의 실제 현장 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 개발·실증 지원

* ('23) 신규 19개소(285억원) → ('24) 신규 48개소(720억원)

③ 해외기업 인수 및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활용하여 글로벌 개방 혁신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 조성(~'30년 1조원)

* (사례) 이스라엘 OurCroud-국내 NH벤처투자, 말련 ILHAM Capital-국내 인터베스트가 공동 운용하는 2,000억원 규모 펀드를 금년內 결성하고 투자 개시 목표

- CVC의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한 전용펀드도 1조원 규모 조성

* 글로벌 개방 혁신 추진 국내기업, 모기업 협력대상 해외첨단기술기업 등

- 일반지주회사 CVC에 대한 해외투자 규제 완화(총자산의 20 → 30% 이내)

* E벤처투자는 美 F社에 500억원 투자를 검토, 2,500억원 펀드 운용 필요해 추진 불가

- 해외 고성장 기술과 기업에 투자하는 전문투자기관* 신설 검토

* 예 : EDBI(Economic Development Board Investments)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자회사로,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기술이전, 파트너십, R&D센터 설립 등을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 강화

② 개방 혁신 3대 분야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기술 유형별 협력 과제 발굴·추진】 (추가 발굴 추진)

1. 초격차 기술 신속확보 :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 등

- 신속한 기술확보 및 상용화를 위해 M&A, 기술도입, 라이선싱 추진
-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글로벌 기업 등과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확대

< Flagship Project 1 : 자율차용 AI 가속기 반도체 개발 >

- 국내 팹리스 기업과 탑티어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기업과 공동개발 추진
- SDV용 AI 가속기 개발과 함께 실증을 통해 기술 상용화 활용 촉진('25~'28, 290억원)

2. 전략 기반기술 협력 확대 : AI, 양자기술, 차세대 원자력 등

- 인력파견, 세계최고 수준의 공동R&D를 통한 원천기술 연구 투자
- 국내 기업의 신기술 활용 지원을 위해 국제공동 장비·인프라 구축

< Flagship Project 2 : 글로벌 퀀텀 컴퓨팅 산업 응용 네트워크 >

- 既구축 중인 양자컴퓨터 시스템의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원
 - * (소관) 연세대, (양자컴퓨터) IBM社 127큐비트, (준공) '24.12월 예정
- 소재, 신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컴퓨팅 활용 및 관련산업 육성 지원

3. 현안기술 공동 대응 : 탄소중립, 국민건강, 자원재활용 등

- 양자·다자 협력을 통한 도전적 글로벌 공동 R&D → 성과물 사업화
- 국제기구 등에서 추진되는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및 파트너십 확대

< Flagship Project 3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CCUS 상용화 >

- 정상회담 등을 통해 우수 기술 보유한 국가와 상호 기술 지원 협약 체결 추진
- 세계최초 혁신기술, 대형화 등 선행기술을 확보해 CCUS 상용화('25~'28, 216억원)

【프로젝트 전담팀 운영】

- 전문기관 TF를 구성해 인재전문성 검증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프로젝트 기획 - 해외 인재·기관 발굴 - 협업 지원 등 전주기 관리

3 글로벌 개방 생태계 조성

1 글로벌 개방 혁신 촉진자 양성

- (혁신전문가) 글로벌 특화 기술경영(MOT) 전문대학원을 도입하고, 글로벌 산학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협력 전문가 육성('25~'29, 250억원)
 - * 기술전략 수립, 글로벌 혁신네트워크 구축, 기술이전, 공동연구 운영, 기술자산(IP) 관리 등
- (재직자) 기업 종사자별 개방 혁신 맞춤형 교육 실시('25~)
 - * (CEO) 전략 수립, 기업 문화와 조직, 글로벌 M&A 사례, 네트워크 구축 등 (재직자) 개방 혁신의 개념, 혁신 방법론 및 도구, 글로벌 트렌드 이해 등
- (연구자) 기술 비교우위에 있는 해외기관과 공동 연구시 연구자 파견*, 첨단산업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기업·대학과의 연구자 교류** 확대
 - * (비용) 연구비·체류비 등, (거주·연구) 글로벌 협력센터('24, MIT 등 6개) 활용
 - **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24~'27, 2,023명),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25안, 50명)

2 개방 혁신 제도기반 마련

- (제도개선) 정부 정책 및 투자지원 체계 전반에 개방 혁신 요소 도입 추진
 - * 정책 분야별로 기업 애로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애로해소 및 지원 방안 지속 강구

구분	현행		개선방향(예시)
R&D	국내기업·기관 위주로 참여	→	해외기업·기관 협력 대폭확대
기술이전	국내기술 해외이전에 한정	→	해외기술소싱 지원 확대
M&A	국내 M&A 위주 지원	→	해외 M&A 지원역량 강화
투자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집중	→	해외 혁신기업에 투자 추진
인력	국내 석박사 양성	→	글로벌 인재 유치·정책지원 강화
스타트업	국내 스타트업 육성	→	글로벌 TIPS, 해외 스타트업 연계

- (법적근거) 전세계의 혁신인재와 기술을 연결·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 * 글로벌 기술도입 지원, 해외 거점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기술 내재화·활용을 위한 금융·R&D·규제특례